

ΠΙΖΗ7
futuroscope

발간사

안녕하세요. SF&판타지 도서관의 관장 전홍식입니다.

저희 도서관의 회지를 구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의 회지를 통해 인사드릴 수 있는 것은 더 없는 기쁨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로 도서관을 만들게 되어 관장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름대로 꿈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책벌레라고 불리곤 했던 제게 있어 도서관은 꿈의 낙원입니다. 어릴 때 만화방에서 책을 보기도 했고, 근래에는 대여점 등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도서관만큼 즐겁고 재미있었던 경험은 그다지 많지 않지요.

아주 어린 무렵 근처에 살던 형에게 글을 배운 저는 책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100권짜리 그림 동화책을 사 주셨는데, 그걸 하나하나 읽다가 아침이 되어 학교를 가기도 했으니까요. 책을 보느라 밤을 새는 일은 드물지 않겠지만,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 참 어지간히 책을 좋아했던 모양이죠. 요즘도 책을 보느라 밤을 새는 일이 적진 않지만, 그다지 쉬운 건 아닌데 말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어머님께서 근처의 서점이나 만화방을 뒤지는 일이 예사였고, 심지어는 버스로 한 시간 가까이 걸리는 어린이 도서관을 찾아 시간을 보내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니다. (얼마 전 경복궁 근처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사직 공원 옆——에 그대로 남아있어 기쁘기도 했습니다.

당시완 달리 서울 시민이 아닌지라 회원 가입은 할 수 없지만요.)

책이 있으면 행복하고 책만 있으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지루하지 않은 사람…… 그런 점에서는 만화 『리드 오어 다이』의 요미코 리드맨만큼은 아닐지라도 책벌레라는 표현엔 거짓이 없겠습니다. (주: 요미코 리드맨 読子 Readman - 이름 그대로 책을 읽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인물. 식비가 부족해도 책을 사고, 무인도에 떨어져선 GIVE ME BOOK(책주세요)라고 써둘 정도의 독서 바보)

그런 제가 작지만 도서관…… 그것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 작품들을 모은 도서관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꿈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지요.

하지만, 단순히 도서관이 생긴 것만으로 만족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책은 읽어야 보배**』 창고처럼 쌓아두기만 하면 책에게도 미안하니까요.

앞으로 **SF&판타지 도서관**이 더욱 많은 분들로 북적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통해 장르 작품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나아가 이곳을 통해 무언가 새로운 가능성(가령 소설이나 영화 등)을 낳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리하여 언젠가 이곳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즐거운 곳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SF&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

편집장의 말

SF를 딱히 좋아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건만 어찌다 보니 SF 팬덤이 되었더군요. SF라는 장르는 팔리는 장르가 아닌데 어찌다 이런 걸 내는 걸까 하면서 SF 전문 출판사들을 딱한 눈으로 쳐다보았는데 어느새 SF 전문 출판사를 차렸습니다(개점휴업이지만요). SF와 판타지를 전문으로 하는 도서관을 내겠다고 하는 분을 만나서는 재미는 있겠지만 그게 가당키나 하겠는가 생각했는데 어찌다 보니 그 도서관의 운영위원이 되어 있었고, 어찌다 보니 편집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래경〉의 뜻을 설명해 볼까 했는데 공간이 좁습니다. 제게 배정된 공간은 단 한 쪽뿐입니다. 아쉽군요. 다음 기회를 노리지요.

편집이란 신이 하는 것이라던가요, 함부로 인간이 하려니 쉽지 않군요. 두 달이라는 준비기간을 거쳤음에도 시간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 래도 많은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미래경〉을 즐겁게 보시기만을 바랄 따름입니다.

SF무크지 〈미래경〉 편집장
김명철

추신 : 〈편집장의 말〉 같은 식상한 것 말고 좀더 좋은 표현 없을까요?

002	발간사	
004	편집장의 말	
008	작가들	김이환 / 박애진(진아)
016		다나카 요시키 / 전홍식(표도기)
026		마이클 크라이튼 / 전홍식(표도기)
037	스타트렉	드라마 소개 / 장동성(오버마인)
051		영화 소개 / 장동성(오버마인)
063		스타트렉이 끼친 문화적 영향 / 장동성(오버마인)
066		스타트렉의 세계관 / 장동성(오버마인)
084		스타트렉의 배우들 / 배윤희(돌균)
098		스타트렉의 후예들 / 네드리
112	칼럼	한국 SF의 현재 / 고드 셀라, 홍인수(장수제)
121		『타임머신 읽기』 / 홍순명(sonnet)
140	초청단편	낙하산 / 곽재식
157		네 개의 손을 위한 변주곡 / 아밀
175		머리 / 보라
188		엄마꽃 / 은림
203	응모단편	나는 먹는다 / 백광열
205		공산주의 바이러스 / 박인호
208	인터뷰	『U, Robot』 작가와의 만남 / 전홍식(표도기)
217		번역자와의 만남 / 전홍식(표도기)
235	신간 Review	

미래경 001

종이책 발행일 2009년 7월 17일

전자책 발행일 2010년 2월 16일

발행인 전홍식

편집장 김명철

기획 SF&판타지 도서관

표지디자인 김두경

발행처 SF&판타지 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sflib.com/>

주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38-45호 지층

전화 070-8102-5010

팩스 02-6455-5010

이 책은 시공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공사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일본 소설의 인기가 높다고 한다. 과거에는 몇몇 인기 작가들만이 눈길을 끌며 소수의 팬을 이끌고 있었지만, 현재는 「일본인 작가」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눈길을 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붐에 힘입은 듯 일본의 라이트 노벨*들도 NT 노벨이니 익스트림 노벨이니 하는 이름을 달고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비록 「가볍다」는 평을 받긴 하지만, 판타지, SF, 혹은 전설을 소재로 한 한 전기傳奇물 등, 순수 문학과는 다른 장르 작품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수년 전에는 일본의 중고 서점 체인, 북오프(Book-Off)가 상륙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가벼운」 작품들이 항상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아니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들 작품은 아무도 보지 않은 채 잊혀 갔고, 그야말로 헐값에 떨어로 판매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십수 년 전 그 척박하던 현실 속에서도 당시 인기 있던 몇몇 일본 작가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눈길을 끌며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작가(그리고 작품)가 있었으니…….

시니컬한 비평의 음유시인,

다나카 요시키

별의 바다는 나의 바다..... 세계를 넘나드는 전설의 시작

십 몇 년 전. 대여점이라는 것은 조짐도 없고 거리마다 서점들이 꽤 많이 존재하던 시절. 인기 있는 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 서점들은 많았지만. 이곳에서 팔리는 책들의 수량은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고, 대형 서점의 인기는 로비에 의해서 오락가락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대중적인 인기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대여순위」를 확인할

© 田中芳樹・徳間書店
徳間ジャパン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은영전』의 두 주역. 이들은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 동등하게 서술된다.

*라이트 노벨 *Light No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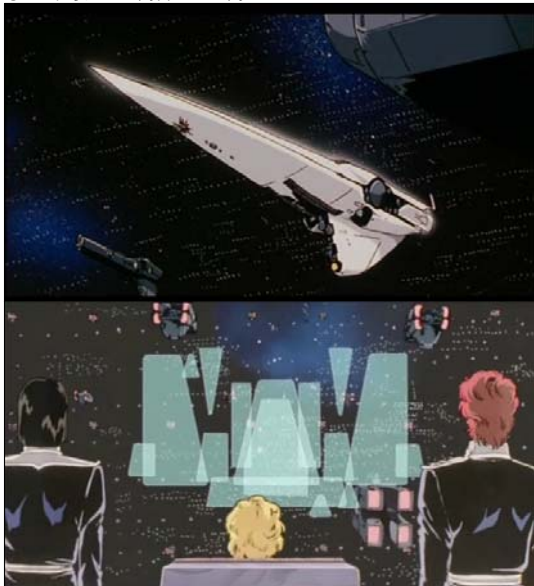
읽기 쉽게 쓰이고 주로 캐릭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판타지, SF 등의 소설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작가도 독자도 짜잡아서 바보 취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건 오직 필자만의 생각일까? 단지 읽기 쉽다는 이유만으로 「가볍다」라는 말을 듣는 건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 있는 대학교 도서관. 구에 하나 도서관이 있을까 말까 하던 그 시기, 젊은이들의 유일한 독서 창구였던 그 곳은 이른바 「젊은이들의 감성」을 알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장소였고 그만큼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리고 때때로 신문을 통해서 「대학 도서관 인기 순위」가 표시되던 당시, 오랜 기간 상위를 독점했던 김용의 작품(영웅문 등)을 몰아내고 부동의 1위 자리를 장식한 일본 작가의 작품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다나카

© 田中芳樹・徳間書店・徳間ジャパン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고도
『은영전』의
전투는
그야말로
눈앞에
확연하게
떠오른다.



요시키의 최고 걸작, 속칭 우주의 삼국지라 불리기도 하는 『은하영웅전설』이었다.

그것은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이야기되지만 똑같이 우주 전쟁을 다루고 있는 『스타워즈』와는 명백하게 다른 느낌을 주는 작품이었다.

제국과 동맹, 독재와 민주의 대결이라는 면에서 이 작품은 지극히 단순한 이분법적 구조로 생각되기 쉽지만, 앞서 말했듯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이 작품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매력을 보여준다.

상승常勝의 천재, 라인하르트의 모습을 통해서 뛰어난 인물에 의한 독재의 효율성을 소개하는가 하면, 반대로 불패의 영웅 양 원리를 통해 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제국의 귀족체제를 비난하는가 하면, 반대로 동맹의 비뚤어진 중우 정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어진다.

라인하르트를 주역으로 군국적인 전제정을 옹호하는 느낌을 주고 있음에도 그 반대편에 양 원리, 그리고 그의 제자인 율리안이 위치하여 「민

© 田中芳樹・徳間書店・徳間ジャパン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반드시
승리하려면
6배의 병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양의 모습에서
「다나카의
현실주의」를
볼 수 있다.



© 2009 Paramount Pictures. All rights reserved.

스타 트렉

기네스북 공인
가장 많은 스핀오프를 내놓은 시리즈

700여 편의 TV 에피소드
10편의 극장판 영화
에미상 31회 수상
관련도서 총 발행부수 7천만 권

그리고 2009년 5월
새로운 형태의 스타트렉이 찾아온다

수많은 매니아를 양산하며
트레키라는 신조어를 낳은 스타트렉
그 매력을 정리해 본다

Star Trek : The Original Series [TOS]

Space..... the Final Frontier. These are the voyages of the starship Enterprise. Its five-year mission: to explore strange new worlds, to seek out new life and new civilizations, to boldly go where no man has gone before.

윌리엄 샤트너의 목소리와 함께, 1966년 9월 8일에 스타트렉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전파를 탔습니다. 처음에 미국의 NBC 방송국에서 방영되었을 때는,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인기는 얻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는 SF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낮아서, 1시즌이 끝날 때 종영을 검토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스타트렉이 2시즌으로 끝난다는 소문이 돌자, 열성적인 팬들의 종영반대 편지가 NBC로 쏟아졌고, NBC는 애초 계획대로 2시즌에서 종영시키지 못하고 3시즌을 방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시청률은 높지 못했고, 스타트렉은 3개 시즌, 총 79 에피소드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종영반대운동에 혼이 난 NBC는 종영계획을 비밀에 붙였고, 스타트렉은 예고나 사전 뉴스 없이 종영된 흔치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스타트렉이 비록 열성적인 팬들에 의해 1개 시즌을 더 방영하였지만, 지금과 같은 인기를 얻게 된 것은 1970년대 미국의 지역방

지역방송 *Syndicate Network*

미국은 주요 전국방송 외에 각 지역마다 전국방송과 연계된 지역방송이 있다. 우리나라의 SBS를 중심으로 상호 프로그램 방영 협정을 맺은 지역민방과 비슷하다.

송국에서 재방송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70년대 재방을 통해 폭넓고 컬트적이라고 할 만큼 열광적인 인기로 인해, 스타트렉이라는 3년짜리 시리즈는 총 5개의 스핀오프와 11개의 극장판을 제작한 가장 유명한 SF 시리즈의 하나로 자리하게 되었고, 2009년 판 기네스북에는 「가장 많은 스핀오프를 내놓은 시리즈」로 기록되었습니다.

TOS의 대원들

© CBS/Paramount Television, All rights reserved.



스타트렉의 탄생

1960년, 어린 시절부터 SF 애호가였던 진 로든베리 Gene Roddenberry는 거대한 우주선이 우주를 탐험하는 이야기를 기획하게 됩니다. 당시의 유명한 작품들——보그트 A.E. van Vogt의 『우주선 비글 Space Beagle』, 영화 『금지된 행성』 등——에서 여러가지 영감을 얻은 로든베리는 연방 Federation

이라는 조직, 대원들간의 관계, 과학기술 등 스타트렉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창조합니다. 커크라는 캐릭터는 해양소설의 명작 『호레이쇼 혼블로워 *Horatio Hornblower*』의 혼블로워 선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경찰이나 군인을 다루는 드라마를 썼던 로든베리는 1964년에 「우주관 서부극」이라고 소개하면서 TV 드라마 독립제작사인 데실루 *Desilu* 스튜디오와 3년짜리 제작 계약을 합니다. 파일럿 에피소드의 원래 제작비는 50만 달러였지만, 당연히 초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된 것이 스타트렉의 첫 번째 파일럿인 「The Cage」

입니다. 아직 여성차별과 인종차별이 노골적이던 60년대에 여성 부선장과 외계인 주연을 등장시킨다는 것은 꽤 진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 TV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워프 드라이브 *Warp Drive*」라는 구체적인 초광속 용어가 등장하였고, 전송장치 *Matter Transporter*라는 물질을 순간 전송시키는 장치도 등장하였습니다. 사실 전송장치는 큰 제작비가 들어가는 「우주선의 행성착륙장면」을 대신하기 위한 설정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스타트렉 및 다양한 SF 시리즈에 종종 쓰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CBS 방송사에 가져갔지만, CBS에서는 『우주가족 로빈슨 *Lost in*

파일럿 pilot 에피소드

독립제작사 또는 방송사의 제작팀이 정식 방영 전에 방송사에 보여주기 위한 에피소드. 시리즈의 전체적인 방향 및 설정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일럿 에피소드는 말 그대로 「시제품」이기 때문에 본 방영시에 설정이나 방향이 대폭 수정되는 경우도 있다.